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이현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31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이수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내과 교수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이 헌 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고대의대의 설립에 이르는 과정과 성장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다양성의 고려와 존중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서양의료 도입 초기로서 매우 열악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유교관습의 높은 벽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여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해외 의료선교사 또는 해외 유학으로 의사가 되어서 국내에 들어온 여의사는 매우 소수였으며, 국내에 설립된 의사양성 기관들도 모두가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다. 남녀유별의 문화와 그로 인해 남성 의사만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은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였고 이 상황에서 모성보호는 어불성설이었다. 당시 서양의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세워진 의과대학 중에 박애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소외된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아우르는 다양성의 가치와 박애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고대의대의 초기역사와 이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은 매우 특별한

서양의료 도입초기 여성의 의료현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서양의료의 도입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여성은 서양의료의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웠는데, 그것은 우선 당시의 유교 관습상 남녀 환자가 같은 장소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웠고,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보이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당시 여성들의 어려운 의료환경은 여성만을 위한 진료시설과 여성 환자를 치료할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료현실은 초기 외국 의료선교단의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였으며, 이에 따라 1886년 제중원(濟衆院)의 호리스 알렌(Horace N. Allen)은 미국 장로회 선교본부에 여성 환자 진료를 위해 여성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제중원에 부인부를 신설하였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화학당의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이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 여의사 파견을 요청하여 1887년 서울 정동에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을 개설하

게 된다. 그에 따라 애니 엘러스 벙커(Annie E. Bunker) (제증원 1886년), 메타 하워드(Meta Howard) (보구여관 1887년),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 (제증원 1888년), 로제타 셔우드 홀 (Rosetta S. Hall) (보구여관 1890년) 등이 국내에 파견되어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과 중요한 모성보호를 극히 소수의 여성 의사가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의사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 여의사 양성을 위한 초기 시도

국내에서 여의사 양성의 시도는 서양의료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학 교육은 19세기 말 보구여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타 하워드의 귀국에 따라 후임으로 1890년 보구여관의 책임자로 부임한 로제타 홀이 이화학당 학생 다섯 명을 조수로 쓰면서 의학을 가르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홀의 일기장을 보면 여의사가 절실했던 당시 사회적 현실에서 이들을 의료인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학생들 중에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김점동(박에스터)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의학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고,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1896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00년 미국의 볼티모어(Baltimore)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된 후 바로 귀국하여 1년 반은 보구여관에서 이후에는 평양의 기홀병원(紀忽病院)과 광혜여원(廣惠女院)에서 불철주야 환자를 돌봤던 박에스터는 과로로 인하여 결핵에 걸려 안타깝게도 1910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

상을 떠난다.

박에스터 이후에 한국인 여의사 양성은 18년의 공백기를 거쳐 일본 유학을 통해 이어진다. 1918년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동경여의전)를 졸업한 허영숙이 그 첫 인물이다. 허영숙은 춘원 이광수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1920년부터 서대문에 의원을 개원했다. 그 외에도 1920년대 동경여의전을 졸업하고 귀국한 여의사로는 정자영, 현신덕, 김복인, 변석화, 길정희, 한소제, 유영준 등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드디어 국내에서 의학교육을 받아 의사가 된 이들이 처음 탄생한다. 이는 로제타 홀이 운영하던 평양의 광혜여원의 이른바 여의사 양성반에서 의학교육을 받던 이들로 로제타 홀의 노력으로 1914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1918년 강습소 2회 남학생들과 함께 졸업 후 의사검정고시를 거쳐 의사가 되었다. 김해지, 김영홍, 안수경이 그들이다. 이후 김해지와 김영홍은 평양의 기흥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안수경은 서울 보구여관의 후신인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이 졸업한 이후로는 더 이상 여학생의 의학강습소 청강이 불허되어 이 경로를 통한 여의사 양성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당시 남녀유별의 관습이 가로막은 것이었다.

■ 여성의 건강불평등과 여자의학교 설립의 열망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습은 단시간 내 바뀔 수 없었기에 여성의사의 부족은 바로 여성의 의료 불평등으로 직결되었다. 로제타 홀은 다방면의 사람을 만나 여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여학생의 입학을 간청하였으나 역시 관습의 벽을 뚫을 수 없었다. 또한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가사과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의과도 같이 신설할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으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하지만 여의사의 필요성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더 대두되었다. 1926년 모 신문에 실린 여의사 현신덕의 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조선에女병원이 필요한 이유 - 근래 서양 문명의 영향으로 여자교육이 다소 보급되는 중에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자는 사회인이 되지 못하고 가정인이다. (..중략..) 다수가 과학적 지식에 애매하고 위생에 무식할 뿐 아니라 옛적부터 내려오는 풍습, 습관이 이러하니 이 부녀의 생명을 위하여 여의사가 필요하다. (..중략..) 남자와 여자는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하게 되면 조선의 일반부녀들은 그 병원은 남자 병원과 다름

없이 생각이 들게 되므로 여자가 경영하고 여자학자만 보는 병원이 필요하다”

(기독신보 1926.12. 1)

이화학교 교의로 있던 유영준의 글도 그 당시의 상황과 여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여의학교- 조선은 본래 예의지국이라고 하여 남녀 구별이 특히 심한 나라인 것은 누구나 물론 아는 바이다 (..중략..) 現下 조선에 있어 반드시 여의학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1) 남자에게는 필사하고 진찰을 받지 않으려는 여성들 (..중략..) 2) 반개하여 중간에 고립한 여성들 (..중략..) 3) 소아에 관한 모든 것과 위생 및 그 신체고장을 잘 헤아릴 사람은 부모인 여성들 (..중략..) 4) 여자의 사정은 여자라야만 그 아는 바 심각하고 (..중략..) 과부의 설움은 동네집 과부가 안다는 것과 같이 날마다 당하고 보는 우리 여의사라야 더욱 절통할 것이다. 現下 조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업은 여의학교 그것이다.”

(기독신보 1926. 12. 8)

이렇듯 시대적 상황은 여의사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현실에서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드디어 여의학교가 탄생하다

로제타 홀의 노력과 이에 따른 여의사들과 유력인사들의 동조에 의하여 1928년 5월 19일 오후 7시에 서소문에 위치한 김병원에서 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 발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로제타 홀의 취지설명 후 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모임은 홀을 비롯하여, 그간의 여의학교 창립을 위해 노력한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창립기 성회가 조직되었으며, 로제타 홀을 비롯하여, 정자영, 허영숙, 최동, 김순복, 이은라, 김탁원, 백인제, 안수경, 김영섭 등 10여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첫 이사회에서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에 초기 사업으로 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9월 4일부터 강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습소의 소장은 로제타 홀이 추대되었고, 부소장은 길정희가 맡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로 여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1928년 9월 4일 드디어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창신동 교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로제타 홀과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김탁원, 길정희, 그리고 아펜젤러(Appenzeller) 목사 부부 등과 기성회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로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의학교육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강습소는 과도기 형태였으며 이후 정식 전문학교로 승격시켜 나갈 예정이었다.

■ 강습소의 한계와 전문학교로 승격

조선여자의학강습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지만 정식 전문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소관 총독부 학무국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만 했고, 졸업생들은 총독부 주관 조선의사시험에 응시를 하여 자격을 따야만 했다. 당시에는 1914년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 의사 시험이 있었고, 여자의학강습소의 졸업생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여자의학강습소의 학생 수는 첫해 17명이 입학 하였고, 매해 15명 정도의 입학생을 받았다. 그러나 도중 하차도 많아서 1933년 당시에 재학생 35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1941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경성여의전)에서 발간한 학교 연혁을 보면, 1928년 개소로부터 1938년 경성여의전 설립까지 여자의학강습소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여, 조선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된 사람의 수가 11명이었다고 한다.

1933년 로제타 홀이 정년퇴임하여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감리교 선교회의 지원이 끊기면서 여자의학강습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후임 강습소



조선여자의학강습소와 학생들(1928~1933)



2대 소장은 김정희의 남편인 김탁원이 맡았다. 일제는 재인가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김탁원은 정식 의학전문학교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김성수, 김종익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명망가를 찾아 다니며 정식 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에 도움을 요청했다.

1937년 5월 6일 순천의 부호 김종익이 임종을 앞두고 거액의 재산을 여자 의학교육을 비롯한 사회사업에 회사하는 유언을 남겼다. 당시 김종익의 기부 는 실로 큰 금액이었다. 이에 힘입어 1938년 5월 1일 경성여의전이 개교하게 되었다. 1890년 로제타 홀이 보구여관에서 의학교육을 처음 시작한지 4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강식(1928년 9월 4일). 앞줄의从左부터 셋째가 로제타홀, 여섯째가 김탁원, 뒷줄
 从左부터 첫 번째가 셔우드홀, 다음이 아펜젤러 부부

만에 이뤄진 쾌거였다.

이후 경성여의전은 해방 후 서울여자의과대학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남녀
 유별의 관습이 사그러진 이후 비로서 1957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수도
 의과대학이 되었으며, 이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197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여성의 의료 불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
 들이 있다.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준 이들의 면면을 기억하는 것도 그 혜택을
 본 후대인들의 소임일 것이다.

■ 우리나라 여자의학교육의 은인들

일생을 바쳐서 박애를 실천한 로제타 홀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 매리 라이언(Mary M. Lyon)



로제타 홀은 1865년 9월 19일 뉴욕의 설리번 카운티 리버티(Liberty, New York)에서 태어났다. 일 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 후, 의료 선교사에 뜻을 두어 1886년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감리교 여성 해외선교회에 자원하여, 1890년 25살의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로제타 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교적 관습으로 죽어가면서도 남성에게는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로제타 홀은 진료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우리나라

라 여의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책임짐과 동시에 이화학당 학생 5명을 조수로 쓰면서 의학을 가르쳤다. 1892년에 의료선교사인 윌리엄 홀(William J. Hall)과 결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윌리엄 홀은 1894년 11월 청·일 전쟁 중에 평양에서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다 발진티푸스에 걸려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당시 둘째 이디스를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홀은 1894년 12월 남편의 사망 충격에 따른 휴양과 출산을 위해 고향 미국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보구여관에서 의학을 가르쳤던 학생 중 박에스터를 같이 미국에 데려가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게 하였다.

로제타 홀은 3년만인 1897년 11월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 세워진 남편을 기리는 기흥병원을 운영하고 1898년에는 그 옆에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세웠다. 하지만 1898년 5월, 4살 난 딸 이디스가 열병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 그럼에도 로제타 홀은 1900년 평양에 맹인학교를 세웠으며 최초의 조선어 점자 교재 개발을 하였고, 농어를 위한 특수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1921년 인천에 인천부인의원(지금의 인천기독병원)을 건립하였다. 이렇듯 로제타 홀의 박애정신은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으로 이어졌다. 실로 시대를 앞서 성별과 장애를 뛰어넘은 다양성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아들 셔우드 홀은 1893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1911년 18세의 나이로 본국으로 건너가 캐나다 토론토(Toronto)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핵학을 전공했다. 1926년 역시 의사인 아내 매리언 버텀리 홀(Marian Bottomley Hall)과 함께 우리나라로 귀환하여 해주에서 병원과 결핵요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짚을 발행하는 등 결핵 퇴치 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홀 가족이 행했던 많은 일들 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숙원 사업은 여의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1933년 로제타 홀은 68세에 4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195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쪽진 머리에 한복을 즐겨 입었다 한다. 그녀의 시신은 화장한 후 소원대로 그리운 한국 땅에 안장되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남편, 아들, 딸, 며느리와 함께 나란히 묻혀 있다.

김탁원, 김정희 부처(夫妻), 위기의 여의학교를 지켜낸 의인

김탁원은 일생을 민족을 위해 산 애국자였다. 그는 1898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으로 학업을 잇기 어려웠으나 검정시험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합격하였다. 졸업반 때 기미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적극 참여한 이유로 1년 6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후 제적당했다가 다시 복교되어 동기보다 2년 늦은 1921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곧 정신의학 전공을 목표로 동경 국립정신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였고, 중국 북경의 협화병원에서도 근무하였다. 김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과 의사이다. 그는 역사, 정치 등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박영효, 이인 등 정치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신간회에도 참여하였다. 1927년 함남 영흥에서 ‘에메친(emetine) 중독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제가 페디스토마 환자 105명에게 인체시험 목적으로 에메친을 주사하여 5명 사망, 6명 중태, 93명을 마비상태에 빠뜨린 사건이다. 총독부는 이를 숨기려 했으나 중독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동아일보는 에메친으로 페디스토마에 대한 효력을 인체 실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그리하여 여론이 들끓어서 한성의사회에서 진상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에서 박승묵, 김탁원을 현장에 파견하였으며 조사 끝에 중독사임을 밝혀낸다. 이로써 영흥, 해남 등지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후 김탁원은 일제 어용 의사단체인 '경성의사회'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한성의사회'에 2회에 걸쳐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약하기도 했다. 로제타 홀에 이어서 2대 여자의학강습소 소장을 맡아서 결국에는 1938년 여자의학



여자의학강습소를 세운 공로자들. 왼쪽부터 김정희, 로제타 홀, 김탁원
(로제타홀 정년퇴임무렵)

전문학교가 탄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경성여의전 설립과정에서 초대 교장인 사토 고조(佐藤剛藏)는 김탁원에게 교무주임 자리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의 항일투쟁 경력으로 인한 일제의 반대로 교수로 임명될 수가 없었다. 이후 김탁원은 일제의 억압이 한창이던 1939년경 42세의 젊은 나이에 간염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민족애와 여의사 양성을 위한 노력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김정희는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0대 초반에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

의 손에서 길러졌다. 조부는 정3품의 관직을 지낸 분이었으며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으로 손녀의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조부의 도움으로 길정희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경여의전에 입학하였다. 1923년 동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동경여의전 재학시절 자신을 찾아와 여의사 양성 문제를 상의한 바 있던 로제타 홀을 찾아가서 함께 여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1925년 김탁원과 결혼을 하였으며 로제타 홀을 도와 마침내 1928년 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부소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1933년 홀 여사가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남편 김탁원과 함께 1938년 경성여의전이 설립될 때까지 여자의학강습소를 운영하였다. 길정희는 1981년에 “나의 자서전”을 출간하여 한 동안 역사에서 묻혀 있던 여자의학강습소를 다시금 조명받도록 하였다. 1990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전재산을 여의학교 완성을 위해 기부한 김종익의 장거(壯舉)

김종익은 1886년 순천의 부호인 김학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20세가 되기까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학에 전념하였으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9년 24세의 나이로 상경하여 중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일본을 이

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며 일본으로 유학하여 1913년 명치 대학 법과에 입학하였다. 귀국 후 김종익은 아버지의 정계, 관계로의 진출 권유를 뿌리치고 재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정계, 관계로의 진출은 곧 일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1918년 제지 사업과 미두(米豆) 사업에 전념하였다. 또한 빈민구제 사업을 위하여 적십자사에 많은 액수의 기부를 하였으며 나병협회에도 거액을 기부하였다. 보성전문학교 30주년 때는 새로운 교사 건립에 1만 2천원의 큰 돈을 희사하는 등 특히 교육사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성수는 당시 여자의학강습소를 여자의학전문학교로 키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 김탁원에게 김종익을 소개했으며 1936년 김종익이 기성회의 이사로 참여했다.

1937년 4월 김종익은 이질로 경성제국대학 부속의원에 입원하였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종익은 5월 6일 저녁에 거액의 재산을 사회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유언으로 기부한 돈은 총 175만원이었다. 당시에 이 금액은 총독부 당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돈이었다. 그 무렵 일본인 부호 1백 명이 모여서 설립한 조선상업은행의 설립 자본금이 477만5천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학강습소를 여자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이었다. 여자의학전문학교의 승격과 부속결핵요양원을 세우는 데에 65만원이라는 거금을 희사한 것은 그가 생전에 총애하던 장녀 평수가 여고 재학 중 결핵으로 사망한 데 대한 슬픔과 의학 발전의 염원이 동기가 되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정식 의학전문학교로서 개교하게 되었다.

고대의대의 역사는 이렇듯 선각자들의 시대를 앞선 숭고한 정신, 인류를 위한 헌신과 기부의 결과이다. 그것은 로제타 홀 가족의 박애와 다양성 존중의 정신, 그리고 홀과 함께 남녀, 신분, 동서양의 차이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보를 함께 하였던 김탁원, 길정희 부부의 헌신, 그리고 여자의학전문학교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김종익의 숭고한 기부가 어우러져 시작된 역사이다. 민족과 박애, 다양성, 그리고 나눔과 기부라는 고대의대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아름다운 헤리티지는 오늘 고대의료원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는 2028년 설립 백주년을 맞는 고대의대에게 이렇게 묻는다.

“고대의대의 심장 속에 시대를 앞선 선각자들의 크고 넓고 따뜻한 마음
이 고동치고 있는가?”

“위대한 전통을 만들었던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마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이수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내과 교수

아흔이 넘는 외할머니는 목포에서 혼자 사셨다. 매일 새벽 미사를 다니고 성서를 통독하고 성서 필사를 위해 필기감 좋은 볼펜을 사러 문방구를 돌아다니는 것이 취미. 결국 91세의 나이에 구신약 성서를 두 번 필사하여 성당에 제출하셨다. 아파트 현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 집주소가 적힌 택배용지가 쌓여 있어서 계절마다 나오는 싱싱한 과일, 생선을 손질해서 자녀들에게 보낼 때 택배 기사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게 준비해 두셨다.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을 모아 여름 휴가 때 자식들과 함께 가는 여행 경비를 통 크게 당신이 다 내는 해도 있었다. 자식들에게 인기 만점. 큰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할머니는 자식이 먼저 갔는데 오래 살아 뭐하냐며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다. 걷는 게 불편해서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관절이 다 닳아버려서 통증을 못 느끼는 지경이 됐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나이를 먹으니 배가 나와서 큰일이라며 TV 보며 매일 요가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면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다. 습

관처럼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빨리 죽어야지’ 말하면서 매일 열심히 운동하셨다. 동네 사람 누군가에게 흘러 3백만원이나 하는 짬짬매트를 사고, 써보니 좋다며 자식들한테까지 사서 보내주는 거 빼고는 정말 멋진 할머니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 할머니께서 서울에 오셨다. 숨이 좀 찬다며 병원에 가보고 싶어하셨다. 흉부 엑스레이가 온통 허영다. 할머니의 폐는 공기가 아닌 뽕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엑스레이 한장 만으로도 폐암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94세. 약간 숨찬 것 말고는 암에 의한 증상이 없었다. 이모, 이모부, 외삼촌 등 가족들과 상의하였고 암 관련 검사나 치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외할머니에게 암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며칠을 보내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뇌 MRI를 보니 정상 뇌 실질보다 암이 전이되어 공동화된 뇌병변이 훨씬 더 크게 뇌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뇌로 정상적인 대화와 사고가 가능했을까 싶게 정상 뇌부분이 다 눌러 있는 상태였다. 오랫동안 천천히 뇌전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응을 하며 사신 것 같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에게 암이라는 말도 못하고 할머니 유언도 못 들은 상태라 뇌에 방사선치료를 해서 할머니가 잠시나마 깨어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기로 했다.

방사선 치료를 세 번 하고 할머니가 정신 멀쩡하게 깨어나셨고 말씀도 제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먼 친척들까지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왔고, 아무도 유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고, 내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1억만 있었어도 치료받고 1년은 더 살아야 허는디...’

‘할머니, 맨날 죽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하느님이 부를 때 가는 거야.’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딴다냐. 노인들 다 말로만 그런 것이여. 나도 1년 정도만 더 살믄 쓰겠다.’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목포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다. 차 뒷좌석에 이불을 푹신하게 깔고 할머니를 모신 후 내가 5시간 운전을 해서 목포에 갔다. 할머니는 당신의 네 딸과 함께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자동차 여행을 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다. 목포 가는 내내 이모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친척들 뒷담화도 하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순식간에 목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당신 살던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아 정말 좋다’ 한마디 하시더니 다시 쓰러지셨다.

할머니를 다시 차 뒤에 태우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깨어나지 못했다. 가족 모두 담당의사인 나에게 언제 임종하실지 물어보았다.

“그건 환자의 생명력에 달려있는 문제죠.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도 없고 통증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꽤 여러 날을 견디셨다. 그동안 가족들은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고 모여 있는 동안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 살아 생전 첫 중풍으로 쓰러지던 때 자식들이 깜짝 놀라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야 한다며 돈을 모았었다. 그렇게 시작한 여행이 20년 넘게 매년 여름 지속되었고 ‘이제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졌는데,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농담처럼 할 즈음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돌아가셔서 다행(!)이라는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평생 사업하면서 돈 문제를 일으켰는데 억척 외할머니가 매번 그 어음을 다 막았다는 이야기, 이모들 어렸을 때 딸이랑 아들이랑 반찬이 달랐다는 등 아들 손주에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거 같았다는 등 외할머니는 남녀 차별주의자라고 할머니 흥을

보면서 며칠을 보낸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임종을 기다리며 가족들이 자주 모여, 힘들게 살았던 옛날 얘기, 할머니 고마웠던 이야기, 소원해진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외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혼했던 외삼촌과 숙모는 이혼을 파기하고 살림을 합쳤다. 죽어서도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며 지독한 할머니라고 욕하며 웃었다. 할머니의 삶과 죽음이 가족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고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친척들은 그때만큼 자주 모이지 않고 그때처럼 함께 여행을 가지 않는다. 말다툼이 있었던 이모부는 가족 모임에 오지 않는다.

■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헤어짐

항암치료를 그만 하는게 좋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보
험이 안되는 비싼 약이라도 좋으니 자기는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다. 몸무게는
40kg도 되지 않고, 최근에 한 항암치료는 모두 한두 번 만에 효과가 없음을 입
증하고 있었다. 나는 몇번의 외래에서 한 시간 이상 그녀와 실갱이를 벌였다.
그녀의 남편도 회사 휴가를 내고 외래에 찾아와서 제발 아내의 뜻을 따라 달
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항암치료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는게 아니다, 이제 더
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고 쓸 만한 약이 마땅치 않다.’ ‘괜히 항암치료 하다가
고생만 하게 될 거다.’라며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나는 어
쩔 수 없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약을 선택해서 항암치료를 하였다.

항암치료 후 최근 1년 동안 나빠지지만 했던 피부병변이 잠시 호전되는 듯
보이니, 환자는 병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 모양이다. 그러나 다음 치료 주기
가 돌아오기도 전에 심한 변비로 입원을 하였다. 항암치료 후 힘들어서 음식
을 거의 못 먹었다고 한다. 어린 두 딸이 있어서 힘들어도 절대 입원은 안 하던

그녀가 오죽했으면 변비 때문에 입원을 하겠다고 했을까. 입원하던 날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보니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 지난번 항암제는 일부 암세포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저항성 높은 다른 암세포에는 효과가 없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 역시 치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항암치료를 했구나’ 싶었다.

‘이 병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환자는 손으로 자기 귀를 막는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피부 병변이 좋아졌으니 이 항암제를 다시 쓰면 더 좋아질 거라며 우기지 만, 환자는 볼 수 없는 등쪽에서 새로운 피부전이 병변이 생기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의 늑막에 물이 고여서 숨이 차기 시작한다. 그 물을 빼는 시술을 하다가 기흉이 생겼다. 기흉을 치료하기 위해 음압이 걸린 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조금씩 나빠질 것이 자명했다. 조만간 열이 나고 의식도 흐려질 것이다.

나는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통증도 심하지 않고 의식도 명료하니 지금이 어찌면 마지막으로 생의 좋은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남편은 예민한 부인을 위해 2인실 비용을 감당하며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병원에 와서 쪽잠을 자고 간다. 환자가 마음을 여는 유일한 창구가 남편이라는 점이 다행이다. 남편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와중에, 곧 죽을 것 같은 아내를 위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환자는 음압이 걸려있는 흉관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원할치 않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 지인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호스피스 팀의 방문도 원치 않는다. 집에 있는 두 딸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다 나온 다음에 집에 가서 애들을 보겠다고 한다. 하루 종일 음식도 거의 못 먹고 있다가 늦은 밤 병원으로 퇴근하는 남편을 만나 죽 한 숟가락 떠 먹고 잔다. 이 환자에 대한 나의 목표는 이제 치료가 아니었다.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남은 시간을 잘 쓸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아침 회진 때 나는 ‘날씨가 좋으니 바깥 바람을 한번 쏘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이다.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환자를 떠나 보내게 되었다. 모두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환자는 떠났다.

■ 병이 낫지 않을 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나보다 훨씬 젊은 유방암 환자. 종류별로 항암제를 다 썼건만 2주기만에 나 빠지고 약을 바꾸면 3주기만에 나빠지기를 반복. 매번 증상도 악화되고 폐에 물이 조금씩 고이면서 숨이 차기 시작한다. 치료 효과가 신통치 않으니 다른 의사에게 가보고 싶다고 해서 소견서와 사진을 준비해 드렸다. 그런데 환자가 다음주에 외래로 돌아와서 나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신다. 나는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니 나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치료를 잘 못한 거 같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

‘선생님, 저 그냥 치료 안하면 안돼요? 치료하는 게 더 힘들어요. 결국 나 빠지겠지만 얼마간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오세요. 병원에 등 돌리지는 말구요.’

환자는 그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왔다.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인다면 응급실로 왔다. 척추로 전이된 종양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다시 걷게 되었다. 또 한 달이 되지 않아 숨이 차서 도저히 누울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왔다. 늑막에 관을 넣고 물을 뺐더니 편안해졌다. 환자는 관을 가지고 퇴원했다.

‘선생님, 제가 언제 죽게 될까요? 제가 살려고 너무 아등바등하는 거 같아요. 마음 정리 다 하고 병원에 절대 안 올 거라고 다짐하는데,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니 결국 병원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병이 그런 거예요. 힘든 건 해결해야죠. 그래도 매번 해결이 되니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시력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니 오른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며 병원에 왔다. 뇌전이였다. 종양의 크기는 작는데 부종이 심하다.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썼더니 금방 좋아졌다. 아침에 회진을 가니 환자가 과일을 먹고 있다.

‘병이 뇌까지 전이가 되었는데도 이런 게 먹고 싶네요.’

‘뭔가 먹고 싶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래요? 저는 제가 너무 살려고 아등바등하는것 같아 좀 부끄러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와서 조치를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환자의 남편은 목사님이다. 내 진료 중에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시다. 반복되는 증상의 악화와 그만큼의 반복되는 검사에도 별 말씀이 없으시다. 묵묵히 부인을 병원에 데리고 오고 치료하는 과정에 협조해 주신다. 아무말 없이 검사동의서에 사인을 하신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나쁘지만 병을 관리하고 삶과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눈물겹고도 평화롭다.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병을 낮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환자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단 하루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잠시라도 편하게 지내야 하는 거니까. 첨단 의학이 아니라 품은 좀 안 나지만 환자가 힘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 주는 게 종양내과 의사의 몫이다.

환자를 위한 기도

50대 후반의 그녀. 담낭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다 마치고 3개월 만에 처음 찍은 CT에서 이전 수술한 부위 근처에서 재발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무 증상이 없다. 재수술을 하고 다시 항암치료를 하였다. 항암치료를 세 번 하고 찍은 CT에서 폐로 새로운 전이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역시 아무런 증상이 없다. 약을 바꿔서 항암치료를 여섯 번 했다. 이번에는 폐 전이가 더 악화되었다. 다시 약을 바꿔서 항암치료를 했다. 이번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입안도 많이 헐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계속 항암치료를 하니 몸만 상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10kg 이상 살을 뺐다. 그동안 입었던 구질구질한 옷은 다 버리고, 부자는 아니지만 모아 놓은 돈으로 명품 브랜드의 좋은 옷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을 사 모았다. 누가 봐도 멋지고 세련된 아줌마로 변신했다. 환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죽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 여기 저기 여행도 많이 다닐

거라고 했다. 항암치료 안하니까 구찌뽕, 약초다린 물, 흑마늘,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는 식이요법을 하겠다고 한다. 병은 여전히 조금씩 진행 중이다. 다른 병원에서 온열치료 중인데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동생이하기를 원하니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대체의료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고 굳이 그러지 마시라고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별로 없고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했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시간이 나면 치유집회를 다니는데 하느님이 나를 낮게 하고 다시 쓰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자기는 암을 진단받았을 때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되는 줄 알고 철석같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재발한 것에 대해 내심 원망이 있는 눈치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는 병원이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다. 의사랑 생전 처음 이야기해 본다고 했다.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드러내 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비협조적이고 말 안 듣는 그런 환자도 아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좋다 하니 그냥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 두자. 한 달에 한 번씩 날 만나러 오신다. 자기 사는 얘기도 잘 하신다.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다 따르지 않지만 그렇게 나름으로 사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는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삶과 가치관, 병을 다스리고 사는 방법을 접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인생

을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이겠거니 한다.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어야지, 나를 찾을 일이 한동안 없기를 기도해야지.’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 젊은 환자의 죽음 그리고 반전

환자가 돌아가신 후 며칠 지나 환자의 어머니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셨다. 아마 환자 물건을 정리하다가 내 생각이 났나 보다. 40대 의사 아들을 보내고 난 어머니는 수년간의 긴 아들의 암 투병기간 중 아들의 병과 건강, 삶에 대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 나였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찾은 사람도 나였다고. 아들을 생각하면 꼭 내 생각이 같이 난다고 하였다.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나는 거절하였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환자가 임종하기 전, 내 부모님 연배의 그들이 당신 자식이 조절되지 않는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증을 잘 조절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 편안히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사란 자존심을 걸고 환자에게 ‘잘못’해서 ‘죄

송'한 일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결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다. 죽어가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 죽어가는 남편 곁의 젊은 부인. 나는 치료 기간 중 이들 두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결같이 이들의 환자를 아끼는 마음이 놀라웠다.

한참 지나 부인이 진단서 때문에 외래로 오셨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며느리와 관계를 단절하고 손녀 양육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이 손녀를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신다. 부인은 결혼 후 십년 이상 집에서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느라 자기 명의로 재산도 없고 모아 놓은 돈도 없어서 요즘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한 부인이 한국 땅에서 경력 단절녀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남편 간병할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다. 반전이다.

■ 엄마의 일기장

환자를 만나본 적은 없다. 그녀의 딸이 엄마가 받은 치료 기록을 가지고 내 외래에 몇 번 왔다. 나는 딸과 상담을 하고 환자를 위해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병원에 오실만한 컨디션이 되면 같이 오시라고. 그러나 겨울내 병원에 오지 못하고 아팠던 환자는 그 겨울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모양이다. 두 남매는 아직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 준비도, 어른이 될 준비도 안 되었는데, 어느새 3월 새학기가 되었고 어색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딸은 엄마 살아생전 자주 싸웠었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 마음 속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팠는지 내 외래로 왔다. 엄마가 죽고 일기장을 보는데 엄마의 일기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의사선생님을 의지하며 매일 일기장에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치료 가능성, 남은 기대 여명 그런 걸 상의하려고 병원에 오고 싶어했다고 한다. 딸은 환자란 그렇게 의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니, 늘 환자들을 사랑하고 아껴 달라고 당부한다. 마음 속 우물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그래 노력할게. 근데 그런 마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 같아. 엄마가 걱정하고 기대한 만큼 너도 잘하렴.’

‘그래야겠죠? 근데 그것도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동생이랑 병원에 들리렴. 내가 커피 사줄게.’

만나본 적도 없는 나를 의사라며 의지했던 엄마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냈다. 딸이 엄마의 일기장을 보면서 의지하고 매일 다짐하는 거 같다고, 동생도 잘 돌보고 자기 인생도 잘 꾸려 나갈 것이니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시라고.

동영상으로 엄마를 찍는 아들

아주 착한 아들. 그는 취업 준비 중이었다. 1년전 엄마가 전이성 대장암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닌다. 증상에 따라 진통제 용량이 바뀌니 진통제 복용일지도 잘 적어 온다. 엄마가 불편한 곳이 많아 약도 많고 다양한데 그걸 종류별로 잘 챙겨서 드시게 한다. 어떤 증상 때문에 약을 더 드셨으니까 그 약은 며칠 치가 부족하고, 어떤 증상은 요즘 호전돼서 약을 안 먹고 있으니 처방 안 해줘도 되고, 때에 따라 약 처방 일수가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데 그런 걸 아주 꼼꼼히 잘 챙긴다. 흥수와 복수 관이 있을 땐 그 소독도 자기가 챙긴다. 엄마가 이것저것 투정을 많이 부리는데 오빠처럼 그 투정을 다 받아주며 엄마 수발을 들고 있다.

그러던 엄마가 많이 나빠졌다. 칼륨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심장마비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다. 최근에 암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는 별 조치없이 임종을 맞이하기로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엄마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는 해도 그러저럭 괜찮기도 하다. 간 전이가 심해서 황달 수치가 10

을 넘었고 혈소판 수치도 2만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데 아직 소변도 잘 보고 있다. 간성훈수가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낮에는 의식이 또렷하다. 말기 임종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엄마 곁에 있는 아들은 한 달째 간병인 없이 혼자 엄마 간호를 하고 있다. 아침 회진을 가면 피곤에 지쳐 자고 있다. 그래도 내가 가서 인기척을 하면 벌떡 일어난다.

오늘은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새벽에는 이런 모습으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간성훈수가 온 것 같다. 간성훈수의 치료를 위해 관장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혈소판 수치도 낮고 환자가 잘 협조하지도 못한다. 콧줄을 끼워서 듀과락 시럽을 투여하여 설사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혈소판이 낮아 콧줄 끼우 기에도 출혈 위험이 높다.

아들은 엄마 곁을 지키다가 뭔가 이상한 게 있거나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은 사항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회진 때 나에게 보여준다. 아주 훌륭한 보호자다.

아주 서서히 나빠지는 엄마. 심폐소생술은 안 하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임종이 빨리 오지도 않는다. 의식이 맑지 않으면 흡입성 폐렴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조짐도 없다. 피검사도 자주 안하는데, 환자가 그냥 처냥 잘 버티고 있다. 환자는 가끔 의식이 맑아져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신다. 지금의 병원 생활

이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기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연명하는 시간이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며칠을 고민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 영양제도 떼고 진통제만 유지하며 최소한으로만 치료했으면 해요. 지금 뭔가를 조금씩 해 드리니까 시간이 조금씩 더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시간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방 돌아가시나요? 언제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나요? 한 달 버티실까요?’

‘지난 한 달간 서서히 나빠지는 속도를 보면 그만큼 견디실 거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 아드님도 많이 지쳐가는 거 같아요.’

‘근데요… 엄마가 정신이 너무 맑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맑지 않은데, 그는 맑다고 한다.)

남은 생이 얼마 안될 것 같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는 것 같으면 그는 그 모습을 찍어 나에게 보여주며 아침마다 보고하고, 그에 대한 나의 판

단을 귀담아 듣는다. 그런 그에게 만약의 상황이 오면 엄마에게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했다니 그가 고개를 떨군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게 맞는 걸까? 병의 진행 코스를 되돌이킬 수 없는 말기 임종환자에서는 수액, 항생제, 영양제, 수혈 등이 추천되지 않는다. 의미없는 시간을 연장할 뿐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에게는 단 하나뿐인 엄마인데. 아픈 엄마 몸을 구석구석 닦아 주고, 아픈지 물어보고, 나에게 엄마의 하루를 동영상으로 보고하는 아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환자는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아프지 않게 돌아가셨다. 아들은 장례 준비도 다 해두었다고 했다. 그렇게 보내드려서 다행이다.

■ 약한 고리

병은 우리 삶의 약한 고리를 노출시킨다. 바쁜 삶 속에 껍뚝 묻어주고 덮어둔 채 살았는데 암과 같이 큰 병을 진단받고 나면 그렇게 묻어둔 개인의, 가족의 많은 문제들이 다 폭발하는 것 같다. 전이성 암을 막 진단받은 남편. 큰 병을 진단받았는데도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치료를 시도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인이 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재혼한 부부고 각자 당신들의 장성한 자식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 가족간에 앙금이 있는 것 같다. 간병하는 부인의 안색이 더 좋지 않다. 손목을 잡아보니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최근 숨도 차고 몸도 자꾸 붓는 것 같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암을 진단받는 바람에 자기 몸은 챙길 여가가 없다고 했다. 작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 자기를 며칠째. 잠을 설치는 남편 시중을 드느라 그나마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보호자가 쉴 시간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하루 세 시간 부인을 대신하여 간병해 주기로 했다. 생

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 환자가 매우 어색해 하였다. 나는 그 시간이라도 부인이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하루 세 시간이 주어지자 부인은 우리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기본 진료를 받고 심장내과로 연결되어 검사도 하고 약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자살시도를 하였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나 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만큼 살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 마음을 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품고 있었다. 재혼 후 살아온 10년의 시간, 좋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했던 그 시간들.

그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어렵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이 남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는가. 병은 우리 삶의 약한 고리를 노출시키지만 어쩌면 그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한 사랑을 깨닫는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암환자와 대화하기

환자와 가족은 병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오늘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환자의 의식이 명료할 때 지인들과 만나고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씀드린다. 병원에 계시다 임종이 임박하면,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마지막 시간이니 1인실로 옮겨서 편안한 환경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자고 한다. 돌아가시기 48시간 전에는 진통제를 제외한 모든 약을 중단한다.

‘선생님, 제가 만약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 죽을지 미리 알려주세요.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불현듯 저세상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꼭 알려주세요.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오늘 돌아가신 환자와 가족은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잘 논의하였다. 암 치료 중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무의미한 생면연장을 위해 심폐소생

술은 하지 않겠다는 것도 미리 얘기하고, 어떤 싸인이 나오면 그건 병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검사나 투약은 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몇 번을 울고 아프게 죽음을 준비하였다. 임종이 예상되면 가능한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임종의 순간이 편한 환자는 별로 없다. 컨트롤되지 않는 병 때문에 숨이 차고 배가 부르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찾아온다. 집으로 갔던 환자는 며칠을 못 버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처럼 편안히 가시면 잘 돌아가셔서 다행이란 생각을 한다.

잘 죽으면 잘 산 것이다.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 난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에게 ‘잘 죽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죽기 전에는 삶의 매듭을 다 풀어야 하고, 오해도 애증도 다 풀어야 하고, 반드시 마음도 다 비워야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제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양내과 의사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다양한 인생만큼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만나며,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채로운 순간의 연속임을 알게 된다. 정답이 있으니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죽음은 그 나름의 의미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 없는 삶의 애환이 녹아있다. 그 흔적은 그렇게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매우 복잡한 삶의 흔적과 기억이 얽혀 있고, 원하지 않아도

남은 자의 삶에 이어진다.

톨스토이는 판사인 이반 일리치가 죽고 난 후 누가 그 자리에 승진할 것인지 살피는 동료, 남편의 죽음 후 국가로부터 더 많은 연금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몰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죽음 앞에서 개인의 삶이 적나라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여, 죽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잘 살지이다. ❄️

이현정

정신과의사이자 생체리듬과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의대 학생시절 <호의령> 고대의대교지 편 집실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잊혀져 있던 고대의대의 가슴 뜨거운 초기역사를 널리 알리는 일을 일생의 또 하나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체리듬만 알면 누구나 폭 잘 수 있다 (2021)>, <자료로 살 펴본 여자의학강습소 (2003)> 등이 있다.

이수현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며 의료사회학을 공부하던 중 병원은 하나의 소우주이며 사회학적 분석 대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대에 왔다가 의대교육을 받으며 사회학적 상상력을 (잠 시) 잃어버리고 종양내과 의사가 됨.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형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운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켜는
혹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영민



Diversitas

권호 15호
발행일 2021년 8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